

흔들리는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

조성위 회의 새 정부 들어 한번도 없었다

조성위원장 6개월째 공석 “인재풀 가동 선임 서둘러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당장 광주 문화수도 조성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으로 6개월째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콘텐츠(CT)기술연구원의 설립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은 물론 민자 유치의 핵심인 투자진흥지구 조성 사업 예산도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

◇CT 연구원 설립=CT 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전략 콘텐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화산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기능 통합 및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사실상 설립이 백지화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 콘텐츠 관련 공공기

관들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CT연구원의 신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투자진흥지구 조성은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 기업체에 장기 임대하는 등 민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12년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차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 장기 임대해 나간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문광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린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투자진흥지구 조성 관련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지원 예산 30억원도 삭감했다.

이에 문광부는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 심의에 다시 예산을 올렸으나 반영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끝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투자진흥지구 조성 예산은 국회의 심의 과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역 정치권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새로 살려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위원장 공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장은 지난 2월28일 조영택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무려 6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이명박정부들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갖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문광부는 조성위원장이 총리급이라는 점에서 후보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유력한 복수의 후보군이 ‘시간을 달려라’ 요청, 선임이 늦

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성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재풀을 가동한다면 위원장 선임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슨 얘기 나눌까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진표 최고위원, 이용섭 의원 등 지도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선별이나 일괄이나” 딜레마

상임위 배분 협상과 맞물려 섣범 따져야 할 판 6명 연대 일괄 복당 요구엔 지도부 부담 느껴

■ 민주당, 호남 무소속 복당 어떻게 돼 가나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제3의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만들기로 하면서 호남 무소속 의원 6명의 민주당 복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시기가 앞당겨지고 ‘배정 복당’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초 국회 내 유일한 교섭단체였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12:6’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3 교섭단체의 등장으로 이 섣범이 흐트러지게 됐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방식대로 계산하면 11(한나라당) : 5(민주당) : 2(선진과 창조)로 정리된다.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자리씩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회피할 방법을 하나 갖고 있다. 복당을 희망하는 호남의 강운태(광주 남)·박지원(목포)·김영록(해남·진도·완도)·이윤석(무안·신안)·이무영(전주 완산갑)·유성엽(정읍) 의원 등 6명 중 최소 4명만 복당시키면 6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의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6일 “현재 기준으로 하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11(한나라당)대 5(민주당)대 2(제3의 교섭단체)’가 되며 민주당에 호남 무소속 의원 5~6명이 입당하면 ‘11대 6대 1’의 비율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때문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무소속 호남 의원 6명의 복당 심사 작업의 본격화를 예고한 것이다.

또 당 내부에서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 유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강운태·이무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의 경우 이미 복당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6명 무소속 의원이 연대해서 일괄 복당을 주장할 경우다. 이 경우 그동안 유지해오던 민주당 지도부의 선별 복당 방침이 흔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들 6명 의원은 지난 7월말께 만나 일괄 복당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로 하고 박지원 의원에게 민주당 지도부와 소통 역할을 맡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도 이를 받아들여 민주당 지도부에 일괄 복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의석이 절실해진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별 복당 방침을 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괄 복당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6명 중 일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당 지도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2010년 지방선거 대비 단체장·지방의원 ‘군기잡기’

비리 시의원 제명 이어 동구청장 등 윤리위 회부

민주당 광주시당이 신분을 숨긴 채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들과 단합대회 성격의 개성관광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유태평 동구청장과 고수용 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 5명을 시장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본보 8월 2일자 4면〉

민주당 광주시당 김동철 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8일 시장 상무위원회를 열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직무·품위유지와 관련, 자당 소속 지방정치 관계자를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비리, 성폭행 의혹 등을 이유로 광주시의회 김남일, 김철출 의원 등을 중앙당 윤리위에 거쳐 제명된 이후 올 들어 2번째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와 관련해 2010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자체장·지방의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유 구청장과 고 의장, 김형기 부의장, 남순심 운영위원장, 홍기철 기획총무위원장, 전인수 예결위원장 등은 지난 달 30~31일 이틀간 공식 일정을 접고 구청 발주공사 업체 인사,

구청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함께 개성관광에 나섰다. 일행 중 A씨는 2006~2007년 동구에서 발주한 가로등 설치를 비롯한 사업 4건을 수의계약해 시행 중인 전기업체 대표의 형태로 알려졌다. 또 건설업체 대표 B씨는 2004년과 2007년 용산동 도시개발사업과 외국어고 건설사업 등 역점 사업 2건을 공개입찰로 따낸 뒤 공사를 추진 중이다.

더욱이 유 구청장은 이달 초 4일 동안 여름휴가를 잡아두고도 당시 연가를 낸 뒤 사모인 성격의 관광을 떠났고 행정지와 동행인을 비밀에 붙이고 관광객 명단의 직업을 무적으로 적었다.

유 구청장은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직원 정례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동구의원들은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의원들간 ‘내부 고발자 색출’ 논란만 빚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전남도당 주승용 위원장 취임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0년 지방선거에 앞서 기초·광역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활동을 중앙당에서 모니터링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중앙당에 직무평가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광주시당 김동철 위원장 취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동철 의원·사진)은 8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광동 삼무지구 랜드피어 17층 사무실에서 시당위원장 취임식 및 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시당은 취임식에 앞서 제1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사무처 구성안을 확정하고, 시장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취임식에는 김동철 시장위원장을 비롯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광주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지방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당은 취임식에서 민주·우리당



통합에 따른 조직정비를 마무리하고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지도 선언한다. 한편

김동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당직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11시 30분부터 열리는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김주정기자 jnews@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께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어 합니다.
국제약품은 오로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콜라겐, 인삼, 우유, 생선유, 비타민 C, 노년기
- 동맥 경화증 예방, 미연령
- 당뇨, 고지혈증 예방, 체중감량, 주근깨 예방,
피부유형 개선
- 암 예방,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비염, 천식, 알레르기, 수족냉증
-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IBUN 국제약품
http://www.kukje.com/ko/kr